

# 소셜 미디어 콘텐츠 분석에 따른 참여유형 및 학습촉진방안 탐구

Research on the Participation Types and Strategies for Facilitating Learning  
based on the Analyses of Social Media Contents

임 걸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Keol Lim(gklim@suwon.ac.kr)

## 요약

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유비쿼터스 환경 등 다양한 기술적 기반이 확충되면서 최근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활동인 이른바 소셜 러닝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하는 학습자의 다양한 참여유형을 분석하고, 나아가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전략을 탐구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모형으로서 소셜 미디어 콘텐츠 활용 유형을 크게 두 시각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첫째는 읽기 및 쓰기활동에 근거한 참여형태에 따른 분류로서 프로슈머형, 생산자형, 소비자형, 그리고 비참여자형으로 구분하였다. 둘째는 수업 활동 및 수업외 활동에 따른 참여내용별 분류로서 수업내용, 수업관리, 정서표현, 그리고 친교활동으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정한 참여유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K대학교 학생 14명을 대상으로 8주간 마이크로블로그를 활용한 소셜 미디어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참여형태 및 참여내용에 따른 다양한 학습활동 결과가 분석되었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소셜 미디어 활용학습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학습자 분석의 중요성, 교수자 역할의 증대, 그리고 수업모형의 설계 원리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었다.

■ 중심어 : | 소셜 미디어 | 소셜 러닝 | 참여유형 분석 |

## Abstract

According to the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 such as ubiquitous environments, there has been growing interest in learning with social media as known as social learning.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various participation types of social media contents aiming to explore strategies for facilitating learning. Specifically, the research model was established by two aspects in using social media contents. First was classified by writings and readings in contents, which consists of prosumers, producers, consumers, and non-participants. Second criterion was categorized by instruction-related and instruction-nonrelated, which is learning contents, learning management, emotional expression, and social activities. In order to acquire empirical data, a set of fourteen undergraduat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for eight weeks using a microblog. Based on the analyses on the data through learning activities, three learning strategies were suggested to facilitate social media based learning: analysis on learners, role of the instructor, and instructional model design.

■ keyword : | Social Media | Social Learning | Analyses of Participation Types |

## I. 서론

최근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 ‘소셜 비즈니스(social business)’ 등 사회적 상호작용에 기반한 개념과 용어들이 테크놀로지 발달에 발맞추어 등장하고 있다. 이는 유비쿼터스 사회(ubiquitous society)로 접어들면서 사용자들의 온라인 네트워크 활동이 강화되는 추세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지난 2009년말부터 미국 애플사의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 판매되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사용자들의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형성시켜 주었다. 이러한 추세를 이끄는 또 다른 경향은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인데, 다수의 사용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공유하는 장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형성되는 온라인 공동체를 활용하여 경제, 산업, 문화 및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활동이 창출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새로운 경향성의 출현과 더불어 교육 분야에서도 학습자들의 온라인기반 협력활동을 통한 사회적 학습에 대해 관심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소셜 미디어 활용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소셜 미디어를 주제로 한 연구들이 수행되면서 소셜 미디어가 교육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수행되는 추세에 있다. 그런데 이들 연구의 공통적인 특징은 주로 개별 소셜 미디어가 가진 기능적 특성을 활용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경우 대체로 교수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설계 및 개발이 주요 관심사가 되는데, 교수학습활동의 주요한 축인 학습활동의 측면은 대체로 다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교육활동이 교수와 학습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었을 때 최적으로 발생 가능한 것임을 감안할 때,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에서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활동을 분석하고, 교육효과 증진을 위해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학습활동에 학습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는지에 대해 참여형태 및 참여내용 측면을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참여형태는 소셜 미디어 활동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공동체 속의 콘텐츠 생성 또는 소비와 관련된 것으로 쓰기 및 읽기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에 근거하여 프로슈머형, 생산자형, 소비자형, 그리고 비참여자형으로 나누었다. 또한 참여내용의 측면에 있어서는 수업활동으로 수업내용 및 수업관리, 그리고 비수업 활동으로 정서표현 및 친교활동의 내용분석을 기준으로 학습자 참여분석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소셜 미디어 활동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참여양상이 어떠한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소셜 미디어 활용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설로서 제안된 학습자의 소셜 미디어 참여 유형을 바탕으로 첫째, 소셜 미디어 참여형태에 따른 학습활동의 실체를 분석하고 둘째, 소셜 미디어 참여내용에 따른 학습활동의 실체를 분석함으로써 셋째, 소셜 미디어 활용 학습촉진을 위한 수업모형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의 주요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소셜 미디어의 이해

소셜 미디어는 웹기반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협력적 방식으로 창출하도록 돕는 상호작용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이다[1]. 설진아[2]는 소셜 미디어를 “측정 가능한(scalable) 출판기술을 이용해 창출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주장이나 의견을 쉽게 전파하도록 고안된 미디어(p. 39)”로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인간의 필요를 지원하며 인터넷과 웹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다대다(多對多) 커뮤니케이션 형태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도구라고 하였다. 소셜 미디어의 등장 배경을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정보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진보하면서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에 따라 ‘참여’와 ‘독려’를 바탕으로 높은 접근성을 비롯하여 효율성, 즉시성 그리고 이동성이 뛰어난 미디어의 요구로부터 소셜 미디어가 창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

이와 같은 특징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는

블로그(blog), 마이크로블로그(microblog), 위키(wiki) 등이 있는데, 이들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로 불리기도 한다. SNS는 타 인과의 소통 도구이자 의사표현의 기재로서 빠르고 방대한 연결이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참여적 웹을 가능케 하는 웹 2.0 경향성과 최근 등장한 스마트폰(smartphone)의 결합으로 인해 소셜 미디어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다[3]. 소셜 미디어는 공동체의 참여를 전제로 하므로 정보의 확산과 공유가 매우 신속하고도 광범위하게 전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송인혁[4]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매스미디어 커넥터(connector)를 활용한 역동적인 인맥과 인간관계를 창출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에서의 연쇄반응을 통한 메시지의 전파 효과들 [그림 1]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림 1]에서는 개별 메시지의 파급력에 따라 다양한 속도와 도달 수준을 갖고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전파가 가능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 그림의 핵심은 소셜 미디어가 기존의 의사소통 방식 또는 미디어와 비교했을 때 보다 광범위하고 빠르게 메시지의 전달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소셜 미디어의 특징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보의 접근·공유·전달을 원활하도록 돕고, 개방적 환경에서 참여·대화·토론을 촉진시킴으로써 사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이끌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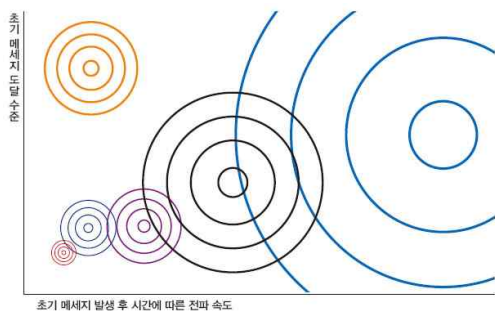


그림 1. 소셜 미디어의 메시지 전파효과 (송인혁[4], p. 12)

이중,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활용한 트위터(Twitter)는 마이크로블로그의 대명사로서 독특한 도구적 특성을 가지며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의사소통 방

식을 주도하고 있다. 마이크로블로그란 사용자들이 작은 단위의 문장, 이미지, 비디오 링크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에서 사용자들이 의사소통하는 방식으로,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주제를 포스팅(posting)하고 상호교류하는 도구이다[5]. 특히 트위터는 ‘글쓰기(tweet)’로 불리는 140자 이내의 메시지 전송을 통해 사용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는 방식의 마이크로블로그로서, 일반적으로 온라인상에서 글쓴이의 메시지가 공개되지만 ‘팔로잉(following)’과 ‘팔로어(follower)’의 관계를 통해 독특한 의사소통 교환방식을 갖는다[6]. 팔로잉이란 특정 사용자의 메시지를 구독하기 위한 장치이다. 팔로잉을 하게 되면 해당 사용자의 팔로어가 됨으로써, 자신의 트위터 홈페이지에서 팔로잉하는 대상자의 메시지를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트위터는 글쓰기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 전달방식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의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는데, 예를 들어 전달하기(retweet), 댓글쓰기(reply), 쪽지쓰기(direct message), 언급하기(mention) 등이 있다. 전달하기는 자신을 팔로잉 하는 사용자들에게 자신이 구독한 타인의 글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댓글쓰기는 자신이 읽는 메시지에 댓글을 다는 방식이다. 쪽지쓰기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상호간에 팔로잉하는 관계끼리만 볼 수 있는 메시지 전달 방식이다. 그리고 언급하기는 메시지 작성과정에서 특정한 사용자의 계정을 언급함으로써 해당자도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는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들은 타임라인(timeline)으로 불리는 사용자 홈페이지 및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도 구현이 가능하다.

한편, 최근의 유비쿼터스 사회의 등장에 따라 사용자는 언제 어디에서나 소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적 기반을 갖는 환경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포함한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은 소셜 미디어 활동을 촉진시키는 주요한 매개체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미 정부[7][8] 및 기업[9][10]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효율성 증대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소셜 미디어의 확산에 대비한 다양한 논의들이 지속되고 있는 추세이다.

## 2. 소셜 미디어 활용교육의 이론적 기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학습방법을 일부에서는 ‘소셜 러닝(social learning)’으로 일컬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수업효과 제고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11][12]. Rotter[13]는 소셜 러닝, 즉 사회적 학습을 학습자에게 주어진 상황에 의거한 ‘행동 가능성(behavior potential)’, ‘기대(expectancy)’, 그리고 행동의 결과에 따른 ‘강화가치(reinforcement value)’로 설명하며, 학습자의 내재적 가치에 따른 학습 환경을 강조하였다. Bandura[14]는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기준을 외적 자극요인에 대한 내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학습이론을 주장하였는데, ‘주의(attention)’, ‘파지(retention)’, ‘재생산(reproduction)’, ‘동기화(motivation)’에 따른 모델링 과정으로 사회적 학습을 설명하였다.

한편, 구성주의적 교수학습이론과 관련하여 소셜 러닝은 Lave와 Wenger[15]의 관점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는데, 학습자들이 ‘실천공동체(CoP : Community of Practice)’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정당한 주변적 참여(LPP :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의 과정으로 학습을 이끌게 된다. 이 같은 구성주의적 관점은 Vygotsky[16]의 사회적 발달이론(social development theory)에서 ‘근접발달영역(ZPD : Zone of Proximal Development)’을 ‘보다 유능한 타자(MKO : More Knowledgeable Other)’의 지원을 통한 사회문화적(sociocultural) 관점을 중요시하는 이른바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를 통해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시각으로는 ‘협동 학습(cooperative learning)’을 들 수 있다. 협동학습은 교수상황에서 집단적 협동 및 협력적인 수업을 바탕으로 집단보상, 개인의 책무성, 그리고 균등한 기회를 강조하며, 직소 모형(Jigsaw), 성취-과제분담(STAD : Student Teams Achievement Division), 팀경쟁학습(TGT : Teams Games Tournament) 등 다양한 형태의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17][18]. 협동학습에서 학습자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사회적 협력 과정을 갖게 된다.

기술 발달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의 협력적 활동을 통한 사회적 학습 역시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이러닝(eLearning) 시스템이 진화하면서 상호작용적 컴퓨터 기술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를 활용한 ‘컴퓨터기반 협력 학습(CSCL : Computer Supported Collaborative Learning)’이 등장하였다. CSCL은 컴퓨터 기능을 활용하여 학습자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구성하는 교수학습 모형이다[19]. CSCL을 통해 학습자들은 컴퓨터를 활용하여 마치 교실에서의 협동적 학습을 하는 것과 유사하게 온라인 게시판 기능 등을 활용하여 협력 활동을 실시하는데, 이들은 전통적인 사회적 학습 이론들에서 주장하는 학습과정을 구현해 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온라인 공동체를 형성하여 학습한다는 것은 특히 최근의 웹 2.0 경향성의 발달과 더불어 협업을 통한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구현하는 과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최근 스마트 기기 및 발달된 소프트웨어의 출현은 온라인 공동체 학습 모형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한편, 온라인 상에서의 협력적 활동은 학습자들의 마이크로콘텐츠(microcontents)를 기반으로 구성된다. 마이크로콘텐츠란 블로그나 마이크로블로그 등에서 개별 포스트를 규정해주는 아이디어를 동반한 작은 정보의 단위이다[20]. 사용자 또는 학습자들은 마이크로콘텐츠를 생성해 냄으로써 협동과 협력활동의 기반을 생성해 내고, 마이크로콘텐츠를 기반으로 지식의 교류 및 상호작용이 이루어짐으로써 집단 지성을 구현해 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셜 미디어는 바로 마이크로콘텐츠 활동을 가능케 하는 도구이며,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협력적 학습활동이 기존의 사회적 학습 이론을 적극적으로 구현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소셜 미디어상에서 학습자들은 상호간에 연결된 온라인 관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마련된다.

## 3. 소셜 미디어 활용교육 선행사례와 한계점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Walker[21]는 마이크로

블로그가 손쉬운 정보 획득 및 공유, 다양한 의견 비교, 반성적 사고, 즉각적 피드백과 비평, 사용절차의 간편성 등의 특징으로 인해 학습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Young[22]과 Smith[23]는 트위터를 활용한 수업의 결과 학습자들이 긍정적인 학습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학습경험들로는, 트위터를 사용하여 98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듣기 말하기 과목의 활용연구 결과, 학습자들은 동기, 사회·문화적 언어의 사용에 대한 인식, 학습 커뮤니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들을 갖게 되었다는 사례가 있다[24]. 또한 먼대면 수업 환경에서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기술이 학습자들이 실천공동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게 된 것을 발견한 연구도 보고되었다[25]. 이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학습 보조 도구로서 소셜 네트워킹을 활용하여 사회적 연결감(social connectedness)을 갖고 학습 경험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트위터를 통한 사용자간의 정서적 교류활동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의 학습자간 관계형성이 적극적인 온라인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정서적 교감을 통한 래포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26].

이와 더불어 최근 모바일 기기 활용과 관련된 소셜 미디어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 초중반을 전후해서는 일반적인 휴대폰인 이튼바 피쳐폰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 및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의 활용과 관련된 탐색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이들의 제한된 기능으로 인해 모바일 기기를 바탕으로 하는 소셜 미디어 연구는 그 한계점을 보였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스마트 기기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소셜 미디어 활용 연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웹 2.0 경향성을 적극적으로 구현해주는 모바일 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다. Cochrane과 Bateman[27]은 대학단위에서의 학습실천공동체를 바탕으로 3년에 걸친 종단연구를 통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소셜 미디어의 교육적 사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는데, 그 결과 스마트폰이 지닌 연결성, 이동성 등의 특징이 무선 컴퓨팅 기반의 혁신적인 소셜 미디어 활용 학습 환경 조성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한편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학습자 관리체제도 제안되고 있다. Kim, Ng, 그리고 Lim[28]은 클라우드 컴퓨터 시대를 맞이하여 시맨틱 웹(semantic web) 기반의 소셜 네트워킹 기능을 활용하여 개별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확장적인 학습자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이-포트폴리오(e-portfolio)를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소셜 미디어를 적용한 학습관리체제(LMS : Learning Management System)가 미국의 주요 대학 및 기관에서 활용이 시작되었는데,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소셜 미디어들을 개별 환경 및 맥락에 맞게 적용하여 협력적 활동을 기반으로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29][30]. 이들 소셜 미디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요건으로 Cameron[31]은 전략적인 운영계획 설계, 참여자 이해, 타 소셜 미디어 사이트의 지속적 탐색, 새롭고 신선한 정보의 지속적 제공, 유연성, 적절한 감시와 통제, 책임성 있는 참여, 돌발적 상황 대처 등의 실천 규범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소셜 미디어 활용 교육의 관점은 대체로 소셜 미디어의 특성에 따른 학습결과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 그런데 소셜 미디어 활동은 전술한 바와 같이 마이크로콘텐츠가 활동의 기본단위가 되는데, 학습자들이 마이크로콘텐츠에 접근하는 방식 또는 소셜 미디어 내용 구성의 유형을 유기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Haythornthwaite[32]은 온라인 학습에서의 사용자 참여를 인출(retrieval)과 기여(contribution)로 구분하여 마이크로콘텐츠의 내용 특성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는 인출을 온라인 상에서 획득된 정보를 평가하기 위한 일종의 사용자 책무성으로 보았으며, 기여는 참여를 통한 정보생성의 과정으로 해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학습자들이 포괄하는 특징과 양상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소셜 미디어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소셜 미디어 활용교육에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 III. 소셜 미디어 참여유형 탐구

소셜 미디어 학습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학습자들의 온라인 공동체에 참여방식과 의사소통 내용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될 때, 양적·질적으로 풍부한 마이크로콘텐츠의 생성이 가능해 질 것이다. 또한 마이크로콘텐츠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학습이 성공적이 될 수 있다.

마이크로콘텐츠는 주로 사용자들이 쓰기활동을 함으로써 구성되고, 읽기활동을 통해 교류가 진행된다. 또한 마이크로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온라인 공동체 활동 효과의 차이가 상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소셜 미디어 활동의 참여 형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 학습활동의 참여유형을 가설로 선정·분류함으로써 실제로 학습자들의 소셜 미디어 활용 학습활동을 양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참여유형은 첫째, 소셜 미디어 활동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참여형태를 고려하였다. 참여형태란 학습자들이 소셜 미디어의 마이크로콘텐츠를 쓰고 읽는 과정 즉, 생산과 소비 활동의 다양성을 일컫는다. 둘째, 소셜 미디어의 내용을 고려한 참여내용 중심활동이다. 이는 실제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학습자들이 어떠한 내용의 의사소통을 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참여형태에 의한 분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형태를 분류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콘텐츠의 포스팅 활용 방식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즉 학습자들의 트위터 활용을 ‘쓰기 활동’과 ‘읽기 활동’으로 분류였다. 쓰기 활동이란 글쓰기, 댓글쓰기, 전달하기 등 트위터 활동이 이루어지는 타임라인에 포스팅을 하는 활동으로써, 생산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읽기 활동은 타임라인에 등록된 글들을 사용자(학습자)들이 확인하고 읽는 활동으로써, 콘텐츠의 소비행위에 해당한다. 쓰기 및 읽기 활동은 문자 중심의 글쓰기 또는 읽기 뿐 아니라, 그림 및 동영상을 게시하고 보는 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읽기 활동의 참여여부와 쓰기 활동의 참여여부에 따라 소셜 미디어 참여

형태를 나누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번째는 ‘프로슈머(prosumer)’형이다. 프로슈머는 글을 쓰는 생산 활동과 읽는 소비 활동을 모두 실시한다는 의미로서 적극적인 포스팅은 물론, 타인의 글도 노력하여 읽는 경우이다. 즉, 생산과 소비활동에 모두 적극적인 참여자라고 볼 수 있다.

두번째는 ‘생산자(producer)’형이다. 생산자 형은 이른바 ‘파워 마이크로블러거(power microbloggers)’와 같이 적극적인 글쓰기 활동을 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생산자형의 경우 본인이 글 쓰는 정도에 비해 타인의 글을 읽고 반응적인 참여를 하는 비율을 낮은 편이다. 주로 공동체 내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유형이다.

세번째는 ‘소비자(consumer)’형이다. 소비자형 학습자는 소셜 미디어 활동에서 생산적 글쓰기는 상대적으로 적게하되, 학습공동체 내에서 타인의 포스팅을 대체적으로 모두 읽고 습득하여 학습활동의 흐름을 알고 있다. 소비자형은 보이지 않게 참여하고 있는 유형이다.

네번째는 ‘비참여자형(non-participant)’이다. 비참여자형은 대체로 포스팅을 쓰지도 읽지도 않으므로써, 소셜 미디어 온라인 학습공동체에 기여하지 않는 학습자 유형이다. 이들은 진행되고 있는 학습내용에 관심이 없다. 다음은 논의된 소셜 미디어의 참여형태를 구분한 도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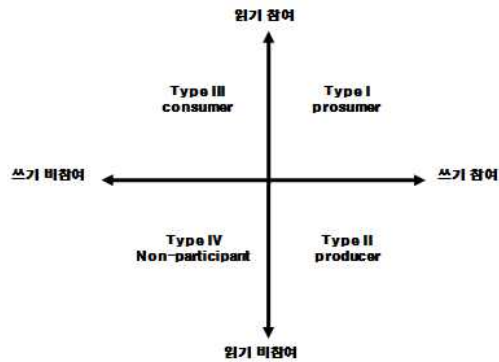


그림 2. 소셜 미디어 참여형태에 의한 분류

#### 2. 참여내용에 의한 분류

소셜 미디어 참여형태 분석은 온라인 학습활동의 물

리적 참여를 구분하는 주요한 방법이다. 이와 더불어 학습자들이 포스팅한 마이크로콘텐츠의 질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학습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가능하는 것은 학습자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다각도로 이해함으로써 효과를 판단하는데 주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의 참여내용에 따른 분류가 필요하다. 임걸[26]의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마이크로블로그 참여형태가 수업내용, 수업운영, 그리고 정서적 표현의 세 가지로 분류되었다. 또한 김상경과 임걸[33]의 연구에서는 외국어교육 및 문화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마이크로블로그 활동에서 학습 및 비학습관련 주제로 분류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학습관련 포스팅은 탐구, 정보교환, 피드백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비학습 활동은 일상 표현, 감정 표현, 그리고 정서적 교류 활동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학습자들의 포스팅을 바탕으로 실시한 내용분석에서는 참여내용을 수업 활동 및 수업외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수업 활동은 수업내용 관련사항 및 수업관리 관련사항으로, 그리고 수업외 활동은 정서표현 및 친교활동으로 각각 세분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수업내용 관련사항은 수업에서 직접적으로 다룬 내용 또는 학습목표와 관계된 포스팅들이다. 수업관리 관련사항은 강의실, 수업시간, 수업장소 등에 대한 정보 또는 과제관련 내용들이다. 정서표현은 참가자 본인의 감정이나 정서상태를 표출하는 경우이다. 친교활동은 특정한 상대방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사회적 관계를 지향하는 대화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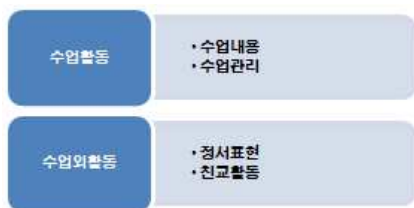


그림 3. 소셜 미디어 참여내용에 의한 분류

IV.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환경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2010학년도 2학기 서울의 K대학교에서 ‘교육과 컴퓨터’ 과목을 수강하는 14명의 대학생이 참가하였다. 성별은 남자 10명, 여자 4명으로 국어교육과 및 교육학과 3, 4학년으로 구성되었다. 수업 이전에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2명 이었으며, 컴퓨터의 기본적인 활용능력에 문제가 있는 학습자는 없었다.

수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블렌디드(blended)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학기 도중 총 8주에 걸쳐 소셜 미디어를 병행 활용하였다. 소셜 미디어는 트위터가 채택되었으며, 교수자(연구자)는 본 연구 대상인 학습자들에게 소셜 미디어 및 트위터 이해를 위한 수업을 사전에 실시하였다. 이후 교수자와 모든 학습자는 트위터 상에서 상호 팔로잉하는 관계를 맺음으로써, 상호간 연결이 되어 있는 온라인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연구기간 동안 학습자들에게는 자유롭게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교수자는 수업내용의 공지, 온라인 상에서의 질의응답, 정서적 활동 등을 통해 소셜 미디어 학습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림 4]는 트위터 상에서 학습자들이 팔로잉-팔로어 관계를 형성했을 때 구성된 학습공동체 상호 연결망 도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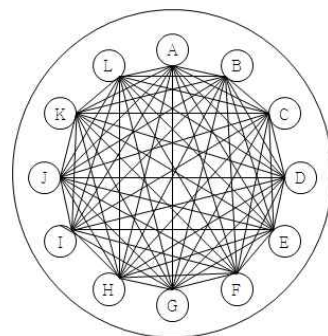


그림 4. 소셜미디어 의사소통 연결망 (A-L : 학습자 예)

이와 같이 조성된 학습환경을 통해 연구자 및 연구대상들은 온라인 상에서 트위터를 활용하여 소셜 미디어 활동을 실시하였다. [그림 5]는 트위터 타임라인을 통한 소셜 미디어 상호작용 화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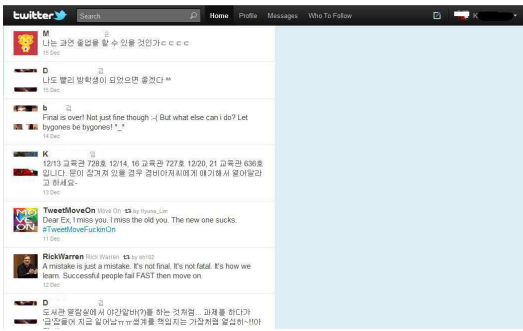


그림 5. 트위터 타임라인 활동화면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기술분석(descriptive analysis),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그리고 인터뷰(interview) 방법이 혼합 사용되었다. 연구 기간 종료 후, 우선 8주 동안 진행된 소셜 미디어 활동 결과 학습자들의 포스팅 수를 비교함으로써 쓰기 활동 참여정도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학습자 특성 및 경험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시지 내용 또는 유형을 다루는 주제별 내용분석(thematic content analysis) 방법[34]을 통해 소셜 미디어 활동의 진행양상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NVivo 8 소프트웨어[35]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들의 읽기 활동의 정도를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분류된 기준에 따라 연구대상들이 스스로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참여유형을 확인하였다.

V. 연구 결과

학습자들의 소셜 미디어 참여유형은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상정한 쓰기활동과 읽기활동에 기반한 네 가지 참여형태 및 수업 관련과 비관련의 네 가지 참여 내용에 따라 분석한 결과 유형별로 상이한 참여 특성을 보인 것이 확인되었다. 다음은 각 분석방법에 따른 참여유형 분류 및 분석 내용이다.

1. 참여형태에 의한 분류

8주 동안의 트위터 활용 결과 총 386건의 마이크로콘

텐츠가 게시되었다. 이중 교수자의 59건을 제외할 경우 총 327건을 학습자들이 포스팅 하였다. 기술분석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1인당 최대 86건의 포스팅이 있었으며, 한편도 포스팅하지 않은 학습자는 2명이었다. 기술분석의 기준은 포스팅 시 상대방의 지정이 없는 글쓰기 또는 전달하기 대비 상대방의 지정이 있는 댓글달기의 비율로 확인하였다. 글쓰기 및 전달하기는 수업공동체 내의 다른 학습자의 글을 읽는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을, 그리고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포스팅을 반드시 읽어야 함에 착안하여 분류하였으며, 이 비율을 근거로 참여형태에 의한 참여유형의 결과를 추정하였다. [그림 6]은 기술통계 분석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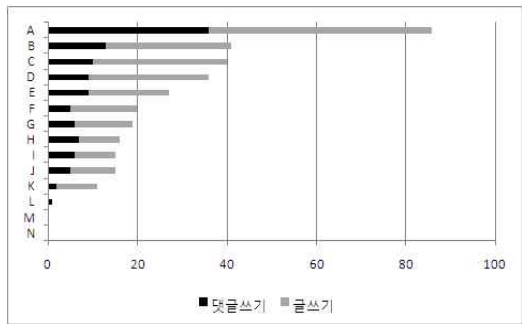


그림 6. 기술통계 분석 결과 (A-N : 연구대상)

분석에 따르면, 1인당 평균 23.36건의 포스팅을 하였으며 댓글은 1인당 7.79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 미디어 글쓰기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2명의 참가자를 제외할 경우 1인당 글쓰기 평균 27.25건, 댓글쓰기 평균 9.08건으로 포스팅의 약 63%가 글쓰기, 37%가 댓글쓰기를 차지하였다. 즉, 학습자들은 평균적으로 포스팅 3건 당 1건 이상은 댓글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글쓰기 활동을 한 A학습자의 경우 총 86건을 포스팅 하였으며, 이 중 41.86%인 36건이 댓글이었다. 따라서 이 학습자는 물리적 참여에 의한 분류를 기준으로 볼 때 쓰기 활동 및 읽기 활동에 공통적으로 참여를 하는 프로슈머형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한편, 11건을 포스팅한 K학습자의 경우 댓글이 2건으로 18.18%의 비율에 그쳐서 타인의 글을 읽고 교류하기 보다는 주로 자신의 이야기를 포스팅하는 생산자



형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글쓰기에 비해 댓글쓰기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타인의 글을 상대적으로 덜 읽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B-J학습자의 경우 15-41건의 포스팅을 하며 25-43.75%의 댓글비율을 보이며 읽기활동을 병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H, I학습자는 비교적 적은 포스팅 수에도 불구하고 각각 43.75%, 40%의 높은 댓글 비율을 보여 상대적으로 타 학습자의 글을 잘 읽는 소비자형 학습자들로 추정할 수 있었다. 한편, L-N학습자는 연구기간 동안 1개의 포스팅을 하였거나 포스팅이 전무한 경우였다. 이들은 비참여자형로 추정되었으나, 인터뷰 결과를 통해 다소 엇갈리는 반응이 확인되었다.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분석된 자료들은 내용분석 및 인터뷰 결과와 비교·대조함으로써 보다 자세한 학습활동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내용분석 결과 기술분석에 비해 참여형태에 의한 분류가 더욱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마이크로블로그의 글쓰기, 댓글쓰기, 전달하기 등의 기능 활용과는 관계없이 포스팅의 내용이 상대방을 지정하거나 염두에 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 B, C, F, J, K 학습자가 상대방을 지정하거나 염두에 두지 않은 본인 중심의 포스팅이 50%를 넘게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학습자들은 타인의 글을 읽고 반응하거나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상대방과의 의사소통 내용이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분석에 비해 학습자들이 타인의 글을 비교적 잘 읽는 편임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특히, I 학습자의 경우 포스팅의 93%가 타인의 글을 읽고 반응한 글이어서 스스로 자신이 글을 생성하기 보다는 타인의 글을 읽고 반응하는 유형의 학습자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인터뷰에서는 기술분석 및 내용분석을 통한 결과와는 다소 상이한 학습자들의 반응이 확인되었다.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A 학습자는 스스로를 프로슈머형이라고 인식하였으나,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습자 전원은 자신을 소비자형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이른바 '나서지 않는' 문화가 보편화된 우리나라의 환경으로 인해 본인이 많은 글

쓰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거나, 또는 포스팅을 적게 한 학습자들의 경우 읽기활동의 정도는 확인이 어려우므로, 쓰기는 덜했지만 읽기를 통한 참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경우로 추측해 볼 수 있었다.

표 1. 참여형태 내용분석 결과 (비율, %)

구 분	상대방 미지정	상대방 지정
A	27	73
B	63	37
C	68	32
D	22	78
E	30	70
F	55	45
G	16	84
H	38	62
I	7	93
J	53	47
K	64	46
L	0	100
M	N/A	N/A
N	N/A	N/A

주)  는 상대방 미지정 비율이 더 높은 경우임.

## 2. 참여내용에 의한 분류

참여내용에 기반한 참여유형 결과는 내용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수업 관련 마이크로콘텐츠로는 수업내용 및 수업관리, 그리고 수업 비관련의 경우 정서표현과 친교활동으로 구분이 되었다. 총 포스팅 수는 각각 57, 63, 69, 138개로서 친교활동과 관련된 마이크로콘텐츠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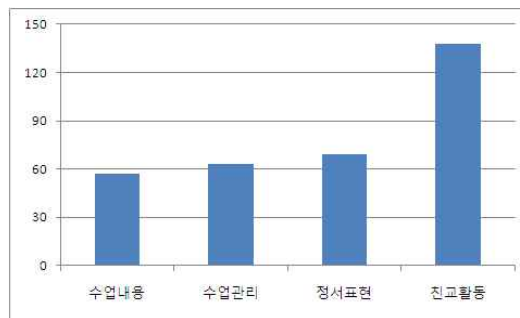


그림 7. 참여내용 분석결과

수업내용과 관련된 포스팅으로는 학습자들이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묻고 답하거나 정보를 알려주는 형태의 것들이다. 다음은 그 예이다.

A : “나도 동참함. 그런데 사회적으로 여성성, 남성성 구분을 두는 게 뚜렷하니까 우리나라에선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편할 듯. 문화에 따라 있다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B : “정보처리모형에서 병목현상이 부호화를 잘 못하는 건가요, 인출을 잘 못하는 건가요?”

수업관리의 내용은 수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행정사항 및 활동들에 대한 내용들이다.

D : “(발표자료) 메일로 못 보냈으니 트위터로 올리겠습니다.”

H : “학우여러분- (온라인) 포럼방에 답글 확인해주시고 질문들도 많이 올려주세요.”

정서표현은 수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이 온라인 공동체 상에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경우들이었다. 예들은 다음과 같다.

B : “새벽까지 정말 무섭게 비오더니 언제그랬냐는듯 짱짱.”

J : “중간고사 밤샘공부 비몽사몽...이 얼마나 평범한 대학생생활인가, 내일 임용고사 보는 것만 빼면.”

친교활동은 정서표현과 유사하게 수업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을 포스팅하지만 상대방과 의사소통하는 것에 주요한 목적이 있다.

E : “@OOO, 그 장소 이름이 뭐야?”

I : “@OOO 형, 이번에 다큐 영화제 가세요?”

학습자들의 포스팅 중 친교활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소셜 미디어, 특히 마이크로블로그의 특징이 잘 반영된 이유로 볼 수 있었으며, 서로 다른 학습목표

를 가진 수업상황에서 어떠한 유형의 의사소통을 장려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임결[26]은 그의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소셜 미디어의 개별적 특징에 따라 토론 및 위키 소프트웨어 등 학습 상황에 적합한 상이한 도구를 활용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참여형태 및 참여내용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특정한 경향성을 발견되지 않았으며, 학습자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 V. 소셜 미디어 활용 학습촉진 방안

### 1. 소셜 미디어 촉진을 위한 기본 원리

본 연구에서 상정한 소셜 미디어 참여유형에 따른 실제적 활용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소셜 미디어 활용 학습촉진을 위한 원리를 도출하였다. 첫째, 학습자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 상정된 소셜 미디어 참여 형태 및 내용모형에 따라 학습활동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참여형태와 양상이 발견되었다. 이 같은 학습자 활동중심의 분석은 이전에 논의되지 않았던 바이나 본 연구결과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학습참여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와 같은 상이한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업모형의 설계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 활용 교육시 학습자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수업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교수자의 역할 규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으로 교수자 역할을 최소화하여 결핍으로 인한 요구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다수의 학습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공동체의 효과적인 유지 및 운영을 위해 교수자의 적절한 개입을 통하여 촉진자, 관리자, 정보제공자, 평가자 등과 같은 특정한 역할이 필요한 것이 확인되었다. 셋째, 수업모형의 구축이다. 학습자 분석 및 교수자 역할 설정이 반영되는 것과 더불어, 다양한 교수상황에 따른 최적의 수업모형이 요구된다. 다음은 세부적인 학습촉진 전략의 내용이다.

### 1.1 학습자 분석 강화

본 연구의 참여형태 모형을 통해 제기한 프로슈머형, 생산자형, 소비자형, 비참여자형 등의 학습자 분석은 소셜 미디어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바탕인 마이크로콘텐츠를 기본으로 한 분석 방법이다. 본 연구결과, 대체적으로 학습자들은 소비자형에 가까운 참여의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양상이 소셜 미디어 활용 학습을 어떻게 촉진시킬 수 있을지, 또한 소수의 학습자들이 주도하는 소셜 미디어 의사소통 방식이 모두에게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스스로를 소비자형으로 판단하는 학습자들의 수렴적 인식 경향을 프로슈머형으로 학습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의 활용이 필요한지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분석은 학습효과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온라인 기반 교수모형에서는 거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학습 참여내용에 의한 분석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의사소통하는지, 이에 따른 학습 안내는 어떻게 이루어질 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소셜 미디어는 친교활동에 강한 특성을 보였는데, 학습 목적에 따라 상이한 소셜 미디어의 활용을 모색할 수 있는 시사점이 있다.

한편, 본 분석방법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지닌 여러 형태의 배경과 특성 중 소셜 미디어 활용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추출하고, 이들이 학습효과 제고를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수업에 적용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시점을 기반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 1.2 교수자 역할 규정

본 연구에서는 교수자의 역할을 최소화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자연스러운 마이크로콘텐츠 생성 및 교류과정을 탐구하였다. 그 결과 소셜 미디어 활용 학습에서 마이크로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학습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참여자들의 마이크로콘텐츠 생성을 독려하는 과정이 요구되었다. 또한 마이크로콘텐츠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 다양한 내용들을 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구를 수용하고 원활한

소셜 미디어 학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수자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교수자로서 필요한 구체적인 역할은 첫째,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활동이다. 교수자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동기를 갖게 하는 동기촉진자로서의 활동이 요구된다. 특히 소셜 미디어 활용학습의 경우 학습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학습콘텐츠가 구성되고 진행되므로 동기유발 및 유지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요청된다. 특히 참여형태 중 프로슈머형이나 생산자형을 제외하고는 마이크로콘텐츠의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둘째, 관리자(manager)이다. 관리자로서의 교수자는 소셜 미디어 활용수업의 전반을 효율적으로 조율함은 물론, 의사소통 과정에도 참여하여 논의의 방향이 주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온라인 공동체에서의 소셜 미디어 학습 집단을 조율하는 역할을 실시한다. 특히 참여내용중 정서표현이나 친교활동이 학습목적 필요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적절한 수준의 통제가 요구될 수 있다. 셋째, 정보제공자(provider)이다. 소셜 미디어 활동의 촉진을 위해 지속적인 정보제공의 역할이 요구된다. 정보제공은 학습자들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지만 안정적인고 올바른 정보제공을 교수자가 지원하게 된다. 학습환경에 따라 교수자는 마이크로콘텐츠를 직접 생산해내는 프로슈머 또는 생산자의 역할이 요구될 수 있다. 넷째, 평가자(evaluator)이다. 평가자로서의 교수자는 소셜 미디어 활동을 통해 생산된 다양한 형태의 마이크로콘텐츠의 유용성을 판단하고 정보를 재생산함으로써 학습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즉, 정보의 교정, 확인, 보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책임짐으로써 양질의 학습활동을 견인한다. 이와 같이 교수자는 소셜 미디어 활용 학습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역할과 책임을 맡아 수업을 이끈다.

### 1.3 수업 모형 구축

기존의 소셜 미디어들은 대체적으로 공개형 모델이므로 학습목적만으로 설계되어 있지는 않다. 보다 원활한 소셜 미디어 학습활동을 위해서는 학습집단별로 내적 공동체를 형성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요구된다. 이미

일부 기업형 소셜 미디어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집단내 공동체를 구축하여 활동 하거나, 개별 기업별로 단일 플랫폼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36]. 한편, 본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소셜 미디어 참여형태 중 학습자의 읽기 활동을 파악하는 것은 소셜 미디어의 참여 정도를 가능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측정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학습과정을 기록하고 피드백을 실시할 수 있는 로그파일 생성 기능이 소셜 미디어 수업모형 설계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관점으로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하여 학습자들이 웹, 스마트 기기 등 어떠한 환경을 활용하더라도 이음새 없는(seamless) 연결이 가능한 'OSMD(One Source Multi Devices)' 환경의 활용을 감안한 모형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소셜 미디어에 접근한 2명의 연구대상은 소셜 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의 존재가 접속 빈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같이, 상이한 학습자특성과 학습목표를 지닌 교수학습 상황에서 그에 최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탄력적인 소셜 미디어 모형과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학습 목표의 효과적, 효율적 달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 2. 소셜 미디어 활용 수업모형 탐구

본 연구에서는 향후 소셜 미디어 활용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학습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소셜 미디어 활용모형이 설계되었다. 이 모형은 상기 소셜 미디어 기본 원리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학습자 분석, 교수자 활동, 그리고 수업 실행이 상호작용하여 학습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플랫폼의 형식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선 소셜 미디어 참여형태에 따라 학습자는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소셜 미디어 참여형태는 프로슈머형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 실제에는 생산자, 소비자, 비참여자형 등 다양한 유형이 발견될 것이며, 이들을 프로슈머형으로 전환시키는 동기전략을 모색하거나 또는 학습자들의 고유 유형의 변경이 수월하지 않은 환경일 경우 해당 유형에 따른 활동을 기반으로

로 하는 학습촉진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참여내용에 따라 학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렇지 않은 여러 형태의 마이크로콘텐츠들이 생산되는 소셜 미디어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학습목표를 최적으로 구현하는데 적합한 소셜 미디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임걸[26]의 연구에서는 웹토론 방식의 소셜 미디어는 주로 학습내용 숙지에, 마이크로콘텐츠는 정서적 교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자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소셜 미디어 활용교육에서는 매우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인 교수자의 개입이 요구된다. 다만 학습환경에 따라 다양한 교수자 활동들의 탄력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한편, 소셜 미디어 활동을 촉진시켜줄 테크놀로지 발달은 학습환경을 더욱 풍부하게 지원해 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도 일부 다루어진 바와 같이 유비쿼터스 학습환경을 진체로 한 소셜 미디어 학습활동을 상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학습 도구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는 유비쿼터스한 환경적 기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실행 모형이 학습환경 및 학습자 분석을 통해 구축되어야 한다. 그 결과 제반 여건이 지원되는 상태에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학습공동체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 [그림 8]은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한 소셜 미디어 활용수업 효과 제고를 위한 수업 모형 도식이다.

## VI. 결론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에 있어 기존의 도구 중심 연구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수업 촉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소셜 미디어 활용 환경에서 학습자의 참여유형은 참여형태에 따라 쓰기 및 읽기 활동 여부에 근거한 프로슈머형, 생산자형, 소비자형, 그리고 비참여자형으로 구분되었으며, 참여내용에 따라 수업내용, 수업관리, 정서표현, 친교활동으로 분류되었다. 8주간의 학습활동 결과 연구대상들이 표출한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소셜 미디어 활용교육의 효과를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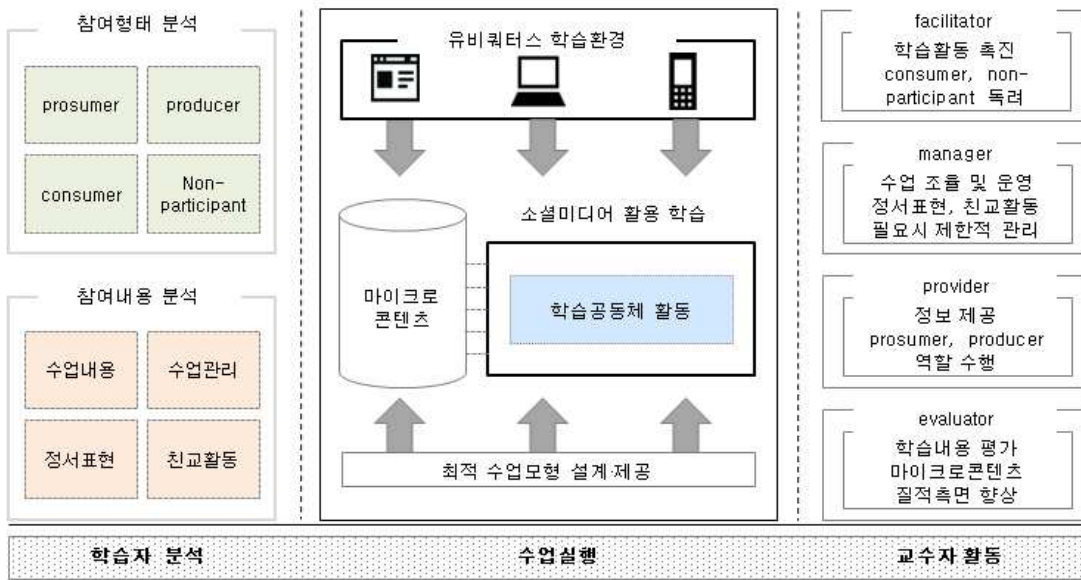


그림 8. 소셜 미디어 활용수업 촉진방안 모형

하기 위한 학습촉진 전략을 학습자 분석, 교수자 역할, 그리고 소셜 미디어 모형 구축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 검증에 위해 참여한 집단의 수가 비교적 소수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점이 있으며, 기술분석·내용분석·인터뷰분석을 통해 다각도로 학습자의 참여유형을 분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의 읽기활동 수준을 정확히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소셜 미디어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이크로콘텐츠를 필수불가결하게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점, 학습자들이 교수자의 의도와 맞지 않게 필요이상으로 수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대화를 지속할 수 있다는 점, 다양한 마이크로콘텐츠의 질적 측면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은 향후 소셜 미디어 활용수업에 있어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활동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최근의 새로운 경향성인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참여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방향을 제시한 것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나아가 향후 소셜 미디어 활용교육을 주제로 하는 후속 연구에 교수-학습이 유기적으로 고려된 수업설계에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본격적인 유비쿼터스 사회에 접어들면서 학습자들의 수업환경이 스마트 기기 등을 통해 웹의 시간 및 공간적 제약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졌다. 이에 따라 소셜 미디어 활용을 통한 학습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습자 참여유형 분석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발전된 형태의 학습촉진방안을 반영한 수업전략 구성이 요구된다. 또한 보다 다양한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고, 학습자들의 아이디어를 온라인 공동체 상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발현시킴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의 개발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1] [http://en.wikipedia.org/wiki/Social\\_media](http://en.wikipedia.org/wiki/Social_media)  
 [2] 설진아, “소셜 미디어의 진화양상과 사회적 영향”,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35-57, 2009.  
 [3] 송경재, “IT기반 소통의 진화 : SNS와 스마트폰이 결합된 소셜 미디어”, 지역정보화, 제64권,

- pp.4-9, 2010.
- [4] 송인혁, “소셜 미디어란 무엇인가”, 플랫폼, 제22권, pp.10-13, 2010.
- [5] <http://en.wikipedia.org/wiki/Microblog>
- [6] <http://en.wikipedia.org/wiki/Twitter>
- [7] 남기범, “정부조직의 소셜 미디어 사용자 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학회지, 제13권, 제3호, pp.41-63, 2010.
- [8] 오관석, “소셜 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모바일 전자 정부를 위한 전략적 접근”, 사회과학연구, 제34권, 제2호, pp.135-161, 2010.
- [9] 이상민, “기업의 마이크로블로그 활용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pp.169-176, 2010.
- [10] 최영균, “마케팅 툴로서 소셜 미디어의 실제와 전략”, 마케팅, 제44권, 제8호, pp.31-37, 2010.
- [11]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532826&g\\_menu=020900](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532826&g_menu=020900)
- [12] T. Bingham and M. Conner, *The new social learning: a guide to transforming organizations through social media*, Berrett-Koehler Publishers, Inc., 2010.
- [13] J. B. Rotter, *Social learning and clinical psychology*, Prentice-Hall, Inc., 1954.
- [14] A. Bandura, *Social learning theory*, Prentice-Hall, Inc, 1977.
- [15] J. Lave and E. Wenger, *Situated learning: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 [16] L. S. Vygotsky, *Mind and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mental process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 [17] 변영계, 김영환, 손미,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학지사, 2007.
- [18] R. E. Slavin, *Cooperative learn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Allyn and Bacon, 1990.
- [19] G. Stahl, T. Koschmann, and D. Suthers, Computer-supported collaborative learning: An historical perspective. In R. K. Sawyer (Ed.), *Cambridge handbook of the learning sciences* (pp.409-426),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20] <http://en.wikipedia.org/wiki/Microcontent>
- [21] L. Walker, “Nine reasons to twitter in schools,” *Technology & Learning*, Vol.29, No.10, p.50, 2009.
- [22] J. R. Young, “10 high fliers on twitter,”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Vol.55, No.31, A10-11, 2009.
- [23] K. Smith, “The twitter experiment,” <http://www.youtube.com/watch?v=6WPVWDkF7U8>
- [24] <http://www.carstenullrich.net/pubs/ICWL78.pdf>
- [25] H. Hung and S. C. Yuen, “Educational use of social networking technology in higher education,”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Vol.15, No.6, pp.703-714, 2010.
- [26] 임걸, “스마트폰 기반 사회네트워크 서비스 활용 수업 사례연구 : 의사소통 내용 및 도구적 특성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방법연구*, 제22권, 제4호, pp.91-114, 2010.
- [27] T. Cochrane and R. Bateman, “Smartphones give you wings: Pedagogical affordances of mobile Web 2.0,” *Australasian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26, No.1, pp.1-14, 2010.
- [28] P. Kim, C. K. Ng. and G. Lim, “When cloud computing meets with Semantic Web: A new design for e-portfolio systems in the social media era,”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41, No.6, pp.1018-1028, 2010.
- [29] <http://www-01.ibm.com/software/lotus/>
- [30] <http://www.socialtext.com/>
- [31] S. C. Cameron, “Eight ways to build community with social media,” *Community College Journal*, Vol.81, No.1, pp.22-26, 2010.
- [32] C. Haythornthwaite, Participatory transformations.

In B. Cope & M. Kalantzis (Ed.), *Ubiquitous learning* (pp.31-48).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9.

[33] 김상경, 임걸, “ESL 학습자의 문화이해 및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마이크로블로그 학습활동 사례연구”,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논문지, 제12권, 제3호, pp.155-174, 2010.

[34] K. A. Neuendorf, *The content analysis guidebook*, Sage publications, Inc., 2002.

[35] NVivo, *NVivo Version 8*, QSR International Pty Ltd., 2008.

[36]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69284](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69284)

#### 저 자 소 개

임 걸(Keol Lim)

정회원



- 1997년 2월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문학사)
- 1999년 2월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문학석사)
- 2009년 5월 : Columbia대학교 교육공학과(교육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전임강사

<관심분야> : Advanced Technologies, 정보격차